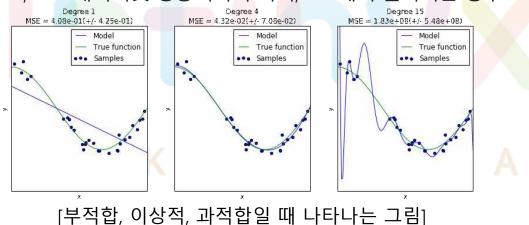




- 부적합(Underfitting), 과적합(Overfitting)
  - 부적합(Underfitting): train, test 데이터셋 모두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
  - 과적합(Overfitting) : train, valid 데이터셋 성능이 우수하나, test 에서 떨어지는 경우



- 인공지능(파란선)의 목표는 True function과 유사해지는것이며, 이를 위해 Samples의 분 포를 학습함
- 부적합일 때 인공지능은 Samples를 맞추는 정확도가 떨어지며, 과적합일 때는 Samples를 너무 잘 반영하여True function과 멀어짐
- True functioin와 유사하지 않을수록,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짐

#### **Gradient Vanishing/Exploding**

- 기울기 소실(Gradient vanishing)및 기울기 폭주(Gradient exploding)
- 학습의 역전파 과정에서 미분 계산값이 소실되거나 발산되어 이상 가중치 발생
-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
- 활성함수변경
- 가중치 초기화: 학습 전 가중치 값설정.Xavier/He initialization 등
- 정규화(Normalization):출력값이정규화되도록 반환

모델 학습 하이퍼파라미터(Hyperparameter)

- (1) Loss function
- 모델이 도출한 output과 정답지 target의 차이를 수치화하는 함수
- 회귀분석에는 MSE(Mean Square Error), Classification에는Cross-Entrop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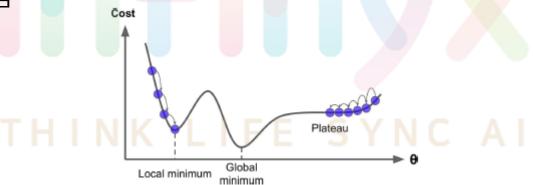
이진 분류문제는 Binary Cross-Entropy를 주로 사용

- loss 계산방식에 따라 Center loss, Triplet loss, Focal loss 등존재
- pytorch에서 제공 하는 기본 Loss function
- https://pytorch.org/docs/stable/nn.html#loss-functions

모델 학습 하이퍼파라미터(Hyperparameter)

(2) Optimiz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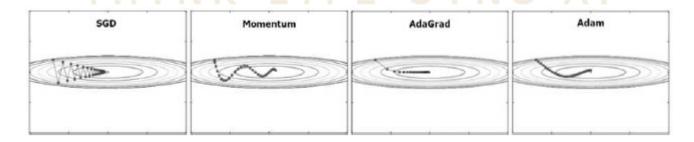
- 가중치(weight)가 구성하는 공간을 탐색하여 모델 loss가 최저가 되는 지점(가중치값)을 찾 아내는 알고리즘



모델 학습 하이퍼파라미터(Hyperparameter)

#### Optimiz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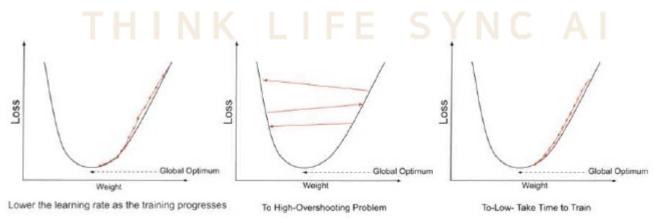
- 기본형은 SGD(Stochastic Gradient Descent)이며, 이를 활용한 기법으로 Momentum, AdaGrad(RMSprop), Adam이 대표적
- SGD: 경사<mark>하</mark>강법. 경사가 급할수록 가중치의변화가 큼
- Momentum:관성 개념접목. 경사의 완급에 따른 변화 정도가 차이남
- AdaGrad(RMSprop): 학습이 깊어질수록 변화량이 작도록 조정
- Adam: SGD 기반, Momentum과 AdaGrad의 특징을 모두 합함



- pytorch에서 제공하는 기본 Optimizer
- https://pytorch.org/docs/stable/optim.html

모델 학습 하이퍼파라미터(Hyperparameter)

- 3. Learning rate
  - Optimizer의 보폭을 조절할 수 있는 하이퍼파라미터
  - Learning rate가 크면 Optimizer의 이동이 크고 작으면 작게 이동함
  - 0.01을 기본으로 사용하며, 학습<mark>되는</mark> 양상에 따라 조절<mark>하며 테</mark>스트함
  - 학습률이 큰 경우: Global minimum을 지나침으로써 학습이 발산될 수 있음
  - 학습률이 작은 경우: 학습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Local minimum에서 종료됨



모델 학습 하이퍼파라미터(Hyperparamete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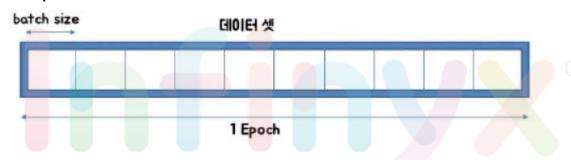
- 4. 배치의 크기(batch size)
  - Batch: 모델의 가중치 업데이트마다(학습 한 회당) 일괄 처리되는 데이터 집합
  - Batch size: 한 번에 처리될 데이터의 개수
  - batch size에 따라 stochastic, full batch, mini-batch로 구분
  - 각각 batch size가 1개, 데이터 전체(n), 데이터 일부(1~n 중 사용자 선택)인 경우
  - stochastic: 학습 시 소요되는 연산량 적음. 하나씩만 학습하므로 학습 효율 저조
  - full batch: 많은 컴퓨팅 자원 소모. 데이터셋 전체를 학습하므로 양질의 학습 가능
  - mini-batch: 절충 방식. 사용자의 컴퓨팅 환경에 맞춰 1회 학습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stochastic보다 효율적으로 학습 가능
  - mini-batch를 주로 사용하며,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가능한 최대 크기로 설정

학습횟수, epoch 와 step

- 학습횟수: 보<mark>통</mark> epoch의 횟수로 지정하며 사용자가 결정
- epoch: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 한 번 학습을 진행하는 것
- step: 한 epoch에 사용되는 mini-batch의 개수=데이터셋 구성 mini-batch 개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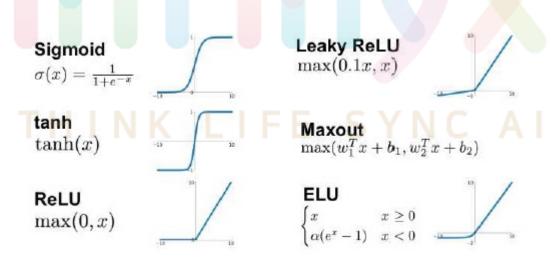
학습횟수, epoch 와 step



- ex) 100개의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셋에 대해, mini-batch 값은 5, epoch 10으로 설정하여 학습을 진행한다면,
- 1 epoch 동안 mini-batch는 20회(= 100 / 5) 호출됨
- 즉, 1 epoch는 20 step으로 구성 총 학습횟수는 10 epoch = 200 step(=10 \* 20)
- ex) 위 상황에서 mini-batch 크기가 10이라면,
- 1 epoch는 10 step으로 구성(= 100 / 10)
- 총 학습횟수는 100 step
- ※ 학습이 '반복' 수행되는 단위라는 점에서 epoch 또는 step을 iteration으로도 명칭. 단독으로 사용된 iteration은 보통 step을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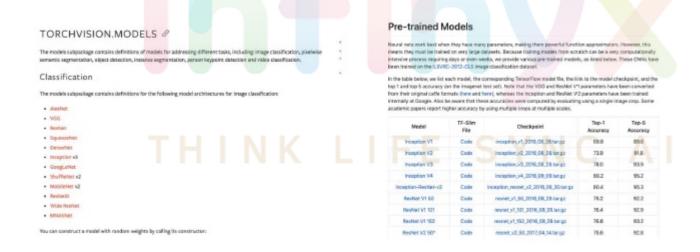
활성함수(Activation function)

- 모델의 각 layer 단의 출력값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
- 초기 함수인 sigmoid는 gradient vanishing 이슈 등이 발생해 잘 사용되지 않음
- 현재는 ReLU(Rectified Linear Unit)와 Leaky ReLU가 자주 사용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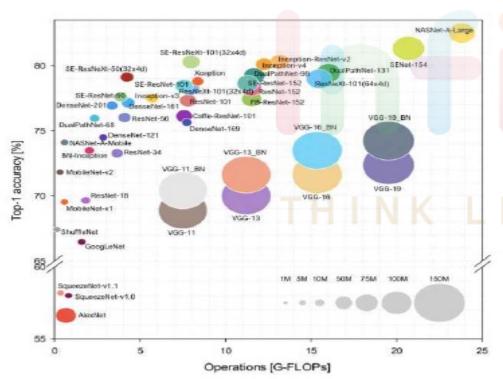
Model – image net zoo

- Tensorflow, PyTorch, MxNet 등에서 빠른 학습을 위해 모델을 모아 놓은 것
-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(deploy)할 수 있음



https://pytorch.org/serve/model\_zoo.html

Model – image net zoo



[ImageNet 기반 모델 성능 비교 그래프]

※ "일반세팅" 4/8GPU 컴퓨팅 환경에서 ImageNet 크기의 데이터셋에서 학습 시 최소 3일~7일 시간 소요 (GPU 성능 의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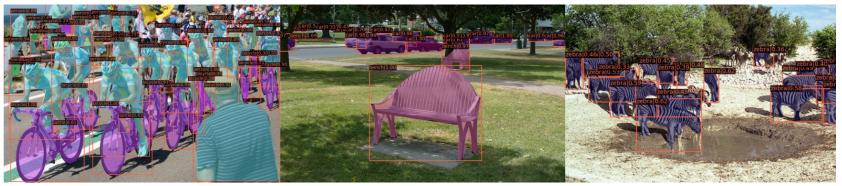
# IFE SYNC AI

- (2) 모델 선택 & 학습: 기존 모델 사용 시
- 일반적으로 ImageNet 기준 상 성능이 좋았던 모델 사용
- 학습할 데이터셋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며, 학습 환경에 맞춰 모델을 세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도 함
- ResNet 50, VggNet 16 등 모델 사용
- (3) 모델 선택 & 학습: 새로운 모델 개발 시
- 모델 구조 설계·개발 및 training scheme 최적화 진행
- 1) 성능·속도 측면에서 데이터셋에 적합한 모델을 설계·연구(반복 실험 필요)
- 2) 최적화된 학습 방법을 테스트하여 모델 정확도 향상
- ※ 학습 방법에 따라 모델 정확도(Accuracy) 기준 3~5% 이상 차이날 수 있음
- 3)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지 확인(아닐 경우 1)에서 반복)

Model – Detection zoo

OpenMMLab에서는 매우 많은 최신 모델을 Open Source Projects로 구현하여 공개하고 있다. 2021.08.30 기준 I I 개의 Officially Endorsed Projects와 6개의 Experimental Projects를 공개하고 있다.





Model – Detection zoo

Detectron2이란?

Detectron2는 Facebook Al Research(FAIR)에서 개발한 Pytorch 기반의 Object Detection, Segmentation 라이브러리이다. MMDetection과 마찬가지로 모듈식으로 작동한다.



#### 성능 측면 – 무거운 딥 러닝 모델

- 1) VGG-16 (파라미터는 많으나, 생각보다 빠르고 성능이 좋음)
- 2) ResNet50-SE (ResNet101이나 ResNet152 대비 efficient, GPU 서빙의 마지노선)
- 3) ResNeXT101-SE + FPN (FPN은 detection등에 적용할 때 성능에 큰 영향)
- 4) Xception 계통 (의외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모델, group-conv 기반)
- 5) EfficientNet-B4 (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지만, dw-conv 기반)

# 속도 측면 – 가벼운 딥 러닝 모델

- 1) ResNet-18 (ResNet-50보다 빠르지만, 여전히 크기가 큼)
- 2) Xception 계통 (CPU용, Xception을 작게 만들어 사용)
- 3) MobileNetV1 (CPU용, MobileNetV2보다 더 좋을 때가 많음)
- 4) YOLO 계열
- 5) SSD 계열

각 모델성능의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 필요

1. 회귀 모델 성<mark>능</mark> 지표

2. 분류 모델의 <mark>성</mark>능 지표

3. 객체 인식 모델의 성능 지표



THINK LIFE SYNC AI

회귀 모델의 성능 지표

- 1. 평균 절대 오차
- 2. 평균 제곱 오차
- 3. 평균 제곱근 오차
- 4. 평균 절대 비율 오차
- 회귀모델이 잘 만들어 졌는지 확인하는 성능평가지표는 실제값과 예측값을 오차들의 통계값을 활용합니다.

### 평균절대오차

실제 정답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절댓값으로 변환한 뒤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다. 특이값이 많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. 값이 낮을수록 좋다.

$$MAE = \frac{\sum |y - \hat{y}|}{n}$$

# 장점

# THINK LIFE SYNC A

- 직관점임
- 정답 및 예측 값과 같은 단위를 가짐

- 실제 정답보다 낮게 예측했는지, 높게 했는지를 파악하기 힘듦
- 스케일 의존적임(scal dependency): 모델마다 에러율 크기가 동일해도 에러율은 동일하지 않음

### 평균 제곱 오차

실제 정답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제곱한 뒤 평균을 구한다. 값이 낮을수록 좋다.

$$MSE = rac{\sum_{i=1}^{n}(y-\hat{y})^2}{n}$$

# 장점

• 직관적임

- 제곱하기 때문에 1미만의 에러는 작아지고, 그 이상의 에러는 커짐
- 실제 정답보다 낮게 예측했는지, 높게 했는지를 파악하기 힘듦
- 스케일 의존적임(scal dependency): 모델마다 에러율 크기가 동일해도 에러율은 동일하지 않음

### 평균 제곱근 오차

MSE에 루트는 씌워서 에러를 제곱해서 생기는 값의 왜곡이 줄어든다. 값이 낮을수록 좋다.

$$RMSE = \sqrt{rac{\sum_{i=1}^{n}(y-\hat{y})^2}{n}}$$

# 장점

• 직관적임

- 제곱하기 때문에 1미만의 에러는 작아지고, 그 이상의 에러는 커짐
- 실제 정답보다 낮게 예측했는지, 높게 했는지를 파악하기 힘듦
- 스케일 의존적임(scal dependency): 모델마다 에류 크기가 동일해도 에러율은 동일하지 않음

### 평균 절대 비율 오차

MAE를 비율, 퍼센트로 표현하여 스케일 의존적 에러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값이 낮을수록 좋다.

$$MAPE = \frac{100}{n} \sum_{i=1}^{n} |\frac{y - \hat{y}}{y}|$$

### 장점

- 직관적임
- 다른 모델과 에러율 비교가 쉬움

- 실제 정답보다 낮게 예측했는지, 높게 했는지를 파악하기 힘듦
- 실제 정답이 1보다작을 경우,무한대의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음

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

- 1. Accuracy
- 2. Precision
- 3. Recall
- 4. F1 score

분류 모델(classifier)을 평가할 때 주로 Confusion Matrix를 기반으로 Accuracy, Precision, Recall, F1 score를 측정한다.

### Confusion Matrix(혼동 행렬, 오차 행렬)

분류 모델(classifier)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표로 모델이 두 개의 클래스를 얼마나 헷갈려하는지 알 수 있다.

	예측		
		Positive	Negative
정답	Positive	TP	FN
	Negative	FP	TN

- **T**(True): 예측한 것이 **정답**
- **F**(False): 예측한 것이 **오답**
- P(Positive): 모델이 positive라고 예측
- N(Negative): 모델이 negative라고 예측
- TP(True Positive): 모델이 positive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정답이 positive (정답)
- TN(True Negative): 모델이 negative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정답이 negative (정답)
- FP(False Positive): 모델이 positive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정답이 negative (오답)
- FN(False Negative): 모델이 negative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정답이 positive (오답)

# Accuracy(정확도)

모델이 전체 문제 중에서 정답을 맞춘 비율이다.

하지만 데이터가 불균형할 때(ex) positive:negative=9:1)는 Accuracy만으로 제대로 분류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Recall과 Precision을 사용한다.

0~1 사이의 값을 가지며, 1에 가까울수록 좋다.

# Precision(정밀도) = PPV(Positive Predictive Value)

모델이 positive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정답이 positive인 비율이다. 실제 정답이 negative인 데이터를 positive라고 잘못 예측하면 안 되는 경우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. Precision을 높이기 위해선 FP(모델이 positive라고 예측했는데 정답은 negative인 경우)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.

0~1 사이의 값을 가지며, 1에 가까울수록 좋다.

$$Precision = rac{ ext{SYN}TP_{\!\!\!A}}{TP+FP}$$

# Recall(재현율) = Sensitivity(민감도) = TPR(True Positive Rate)

실제로 정답이 positive인 것들 중에서 모델이 positive라고 예측한 비율이다. 실제 정답이 positive인 데이터를 negative라고 잘못 예측하면 안 되는 경우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. Recall를 높이기 위해선 FN(모델이 negative라고 예측했는데 정답이 positive인 경우)을 낮추는 것이 중요 하다.

0~1 사이의 값을 가지며, 1에 가까울수록 좋다.

$$egin{array}{c} \mathsf{TH} R^{\mathsf{N}} \mathsf{K}_{\mathbf{e}call} & \mathrel{dashed F} rac{\mathsf{E}}{TP + FN} \end{array}$$

#### F1 score

Recall과 Precision의 조화평균이다.

Recall과 Precision은 상호 보완적인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F1 score를 사용한다. Precision과 Recall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모두 클 때 큰 값을 가진다. 0~1 사이의 값을 가지며, 1에 가까울수록 좋다.

$$F1 = rac{2 imes Precision imes Recall}{Precision + Recall}$$

객채 인식 모델의 성능 지표

- 1. IOU
- 2. Precision Recall Curve
- 3. AP
- 4. mAP



# 객채 인식 모델의 성능 지표

### **1. IOU**

객체 검출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. 일반적으로 Object Detection에서 개별 객체(Object)에 대한 검출(Detection)이 성공하였는지를 결정하는 지표로 0~1 사이의 값을 가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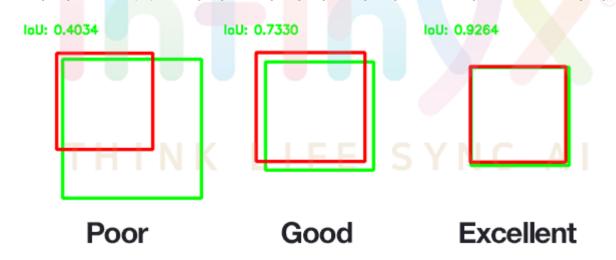
실제 객체 위치 bounding box  $B_{gt}$ =gournd truth와 예측한 bounding box  $B_p$ =prediction 두 box가 중복되는 영역의 크기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결치는 영역이 넓을 수록 잘 예측한 것으로 평가



객채 인식 모델의 성능 지표

1. IOU

IoU 값은 0~1 사이 값을 갖습니다.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.



실제 경계 박스와 예측 경계 박스가 정확히 일치할수록 loU가 1에 가까워집니다.

### 객채 인식 모델의 성능 지표

2. Precision Recall Curve

P-R 곡선(Precision-Recall Curve)는 confidence score를 조정하면서 얻 은 Recall 값의 변화에 따른 Precision을 나타낸 곡선으로 모델(Object detector)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, 일반적으로 P-R 곡선의 면적(AOU, Area under curve) 값으로 계산됨

- Recall이 높아져도 Precision이 유지되는 경우, 특정 Class 검출을 위한 모델 성능이 좋을 것으로 평가됨. 즉 Confidence threshold를 변경하더라도, Precision과 Recall이 모두 높은 경우 모델 성능이 좋을 것으로 평가
- 관련된 객체 만 detection 할 수 있는 모델. 즉 오탐 낮은(0 FP = Precision 높음) 경우도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
- 실제 Object를 모두 찾아내기 위해 Object 수를 많이 Detect 하는 경우 (FP 높은 경우 = Precision이 낮음), 일반적으로 P-R 곡선이 높은 Precision으로 시작하지만, Recall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

# 객채 인식 모델의 성능 지표

3. Average Precision(AP, 평균 정밀도)

AP 곡선(Average Precision curve)은 Precision과 Recall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 지표이며, 실제로 AP는 0~1 사이의 모든 Recall에 대응하는 평균 Precision

- 다른 검출방식에 비해 곡선의 업다운이 심하고, 곡선이 자<mark>주 교</mark>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플롯으로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음. AP 평가 지표는 다양한 모델을 비교에 유용한 방식.
- 2010년부터, PASCAL VOC 챌린지에서 AP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, 현재는 11점 보간법(11-point interpolation) 뿐만 아니라 모든 점 보간법(interpolating all data)을 사용함

```
AP@[.5:.05:.95]
```

 $=\frac{(AP50\times0.5 + AP55\times0.55 + AP60\times0.6 + AP65\times0.65 + AP70\times0.7 + AP75\times0.75 + AP80\times0.8 + AP85\times0.85 + AP90\times0.9 + AP95\times0.95)}{0.5+0.55+0.6+0.65+0.7+0.75+0.8+0.85+0.9+0.95}$ 

객채 인식 모델의 성능 지표

4. mAP(mean Average Performance)

mAP는 모든 점 보간법을 이용해서 AP를 구한 값의 평균

즉, 여러 Class에 대한 AP를 구해야 하므로, 각각의 Class에 대해 AP를 구하고 평균을 산출

$$mAP = \frac{1}{N} \sum_{i=1}^{N} AP_i$$

 $AP_i$ : i 번째 class의 AP값

N: 총 Class수

mAP (mean Average Perfornamce) 계산

